



유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오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유년부 교육 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contents

❁ 3월 교육 내용	04
❁ 3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06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07
어린이 QT God's Time	08
❁ 3월 둘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18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19
어린이 QT God's Time	20
❁ 3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 3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 3월 다섯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54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55
어린이 QT God's Time	56
❁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64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65
❁ 위드 포토	66
❁ 3월 추천도서	68
❁ 3월 위드스티커	69
❁ 3월 교육활동지	70





암송 구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첫째주♥

“어둠의 시대,
빛을 밝혀라”

(31운동 100주년기념특별공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 및 공과로 진행됩니다.

♥둘째주♥

“섬김이
무엇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섬김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셋째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4)

*내 마음을 잘 지켜야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어요.

♥넷째주♥

“섬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36-37)

*섬김의 대상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다섯째주♥

“최고의 것으로
섬겨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13)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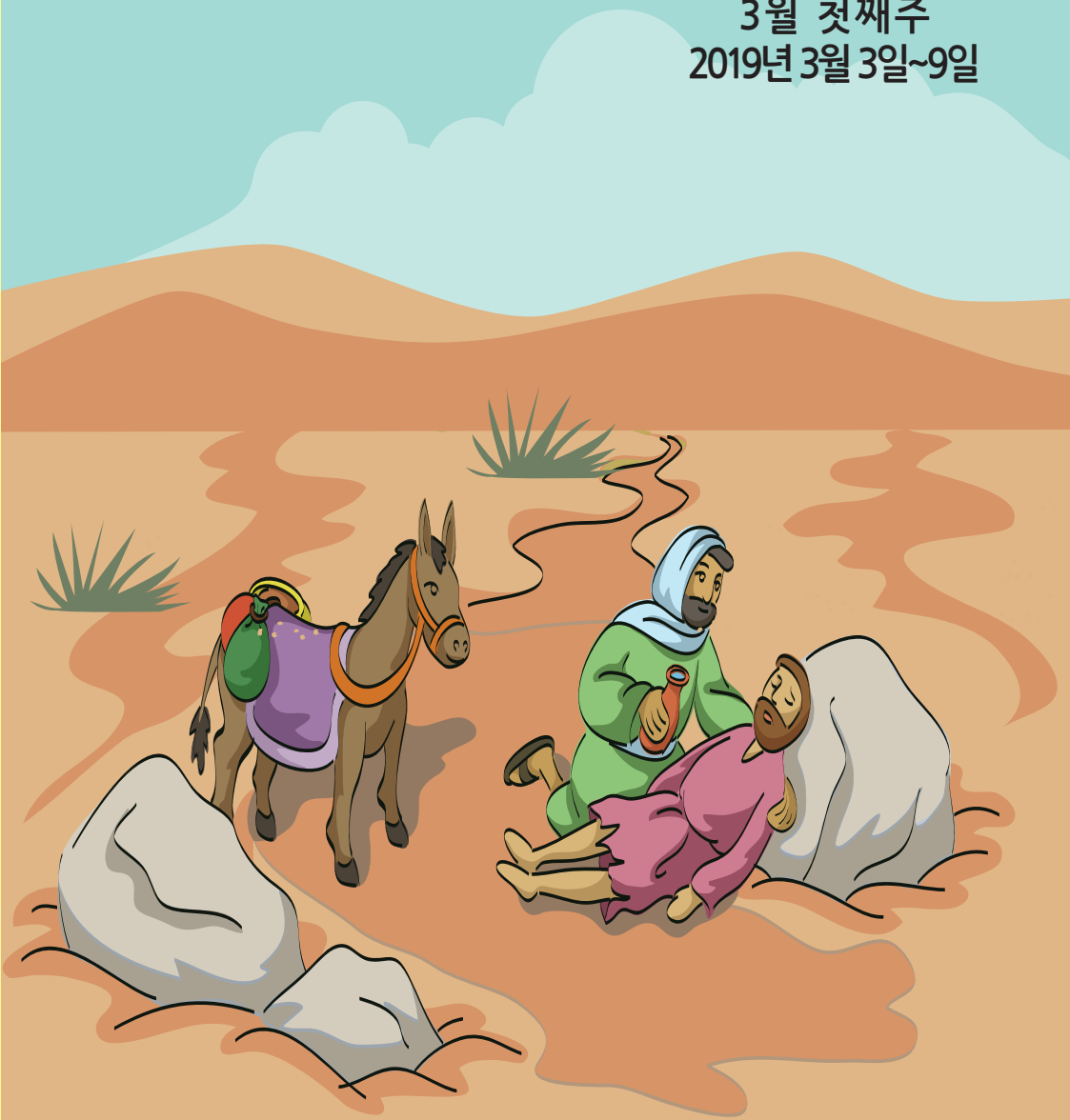
실천 내용

1. 가족에게 섬김을 실천하기
2. 자신의 주변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섬기기

위드

WIT

3월 첫째주
2019년 3월 3일~9일



Memory Time



3.1운동
100주년 기념

첫째주

3.1 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로 진행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마가복음 10:45 -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19.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예레미야 27:1-22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8.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염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 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9.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10.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11.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12.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 남도록 하십시오.
13.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염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14.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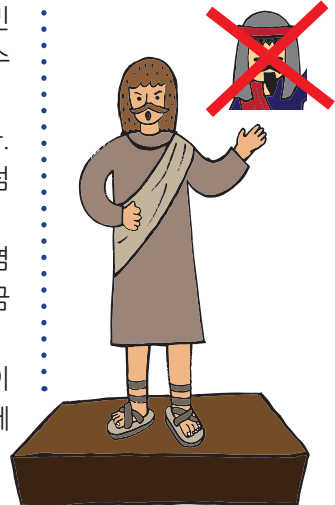
Check

Q 단어사전

멍에: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염병: 전염병

박수: 남자 무당



with
관찰

1. 예레미야는 어떤 나라 왕의 멍에를 목에 메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나요? (8절)

2.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나요? (11절)

땅에 남아 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with
생각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라고 예언했어요. 하지만 다른 예언자들은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자들의 말은 거짓이며,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살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적을 섬기라는 말은 곧, 노예가 되라는 말이니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고향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with
결심

친구들! 우리도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게다가 주변에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면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부추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힘들고 어려운 명령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28:1-17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사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앓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2.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 버렸다.”
 (생략)
12.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 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3.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 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생략)
15.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16.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 버릴 것이니, 금년에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17.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지면 : 땅바닥
 금년 : 올해



with
관찰

1. 누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었다는 거짓 예언을 했나요? (2절)

2.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나요? (16절)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이니,
금년에 네가 이다...'

with
생각

예언자 하나냐는 바빌로니아의 멍에를 목에 메야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겨냥해서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꺾으셨다고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생각과 힘든 일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었어요. 하나냐는 거짓 예언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나냐의 죽음을 예언하셨고, 하나냐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with
결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며, 가볍게 여겨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선 안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29:1-32 “힘든 상황 일수록 더욱 기도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7.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략)

10.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칠십 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 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11.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2.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13.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지만 하면,

14.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 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 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번영 : 번성하고 영화롭게 됨

호소 :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히 알림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에서 어떻게 해야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7절)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고, 그 성읍이
하도록 나 주에게 하여라...”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겠다고 하셨나요?(12절)

“너희가 나를 , 나에게 와서 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빌로니아에서의 힘든 생활 속에서도 그들이 있는 곳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 하며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포로생활에서 건져내시고 고향으로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곳이나 사람에 대하여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일수록 그들, 그곳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우리는 힘든 상황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힘든 상황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30:1-31:14 “나를 도우시는 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6.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네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 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
17. 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 주고, 네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18. 불쌍하게 여겨,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
19.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
20. 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생략)

- + 말씀을 3번
 • 읽어주세요.
 • Check
- Q. 단어사전
약탈 :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음
- **탈취** : 빼앗아 가짐
- **영화** :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
- **억압** : 자기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누름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누구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거처를 불쌍히 여겨, 다시 성읍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나요? (18절)

○ 7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나요? (20절)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해질 것이다...”

with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로니아에 노예로 끌려가 힘들었어요. 그들에게 상처주고 핍박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 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with
결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벌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힘들지 않고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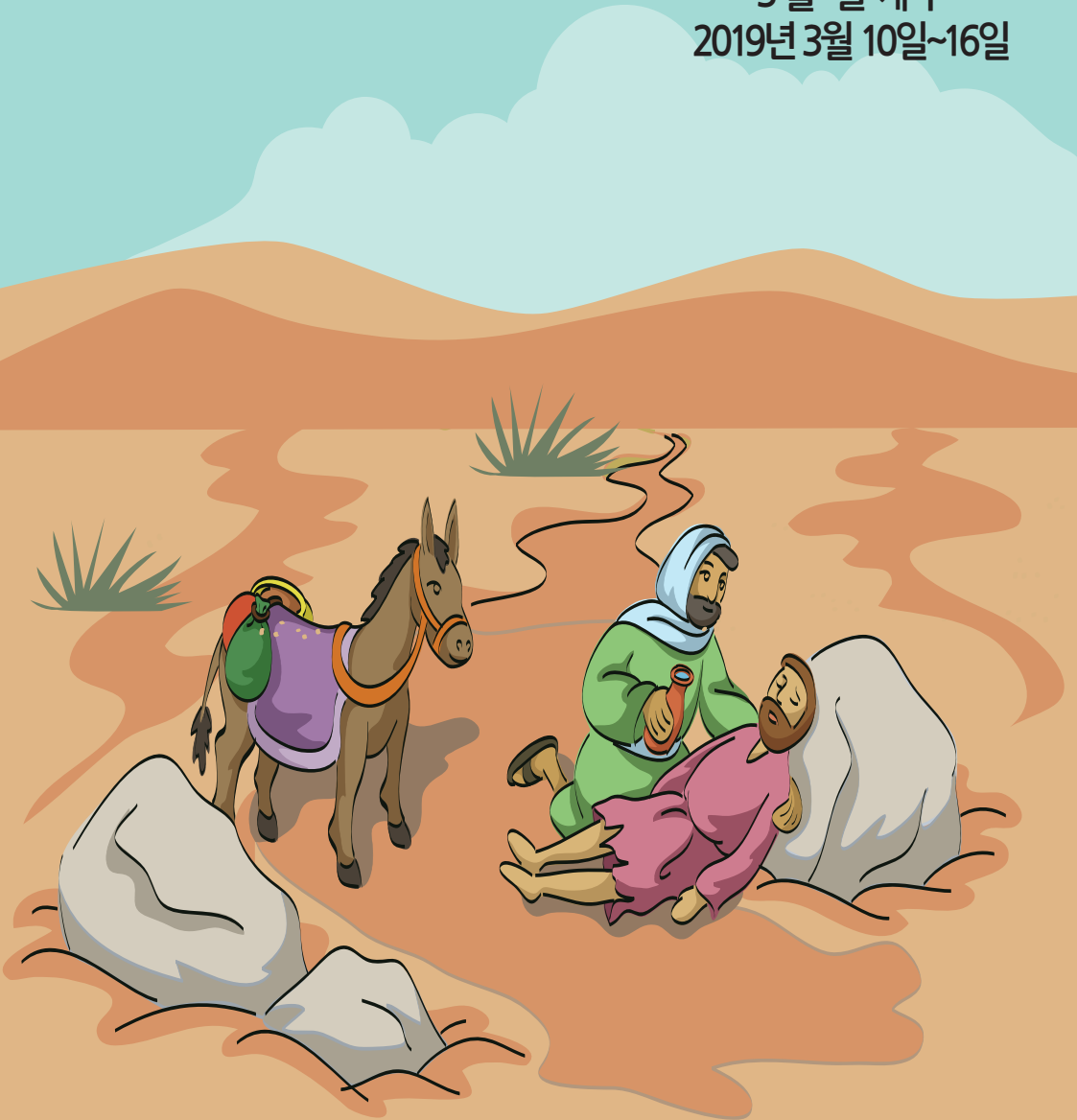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마가복음 10:45 -



위드



3월 둘째주
2019년 3월 10일~16일



Memory Time



섬김이 무엇일까요?

둘째주

♥ 주제 : 섬김

♥ 암송구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 오늘의 주제 : 섬김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35-45
섬김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나요?(44절)

모든 사람의 ○

②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45절)

★ 교육활동 - “칭찬해요”

준비물: 위드지, 필기도구

- ① 위드지 부록에 있는 롤링페이퍼에 좌우에 있는 친구의 좋은 점, 칭찬의 말을 돌아가며 쓰도록 해 주세요. 선생님도 함께 친구들의 위드에 써주세요.
- ② 롤링페이퍼를 보면서, 칭찬의 말을 들은 느낌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높여주는 섬김의 어린이가 되기를 결심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섬김

♥ **암송구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 **오늘의 포인트** : 섬김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섬김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35-45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그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신 후 왕의 영광을 받게 되면 우리를 한 명은 주의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청했던 것이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45절)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모두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예요.

섬김이란 남을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예수님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Q 1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정, 학교, 교회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Pray 가정, 학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요.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31:15-32:15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1.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32.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33.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 주며, 그들의 마음 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34. 그 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 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35.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 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여 파도가 소리 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하신다.
36.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37.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손길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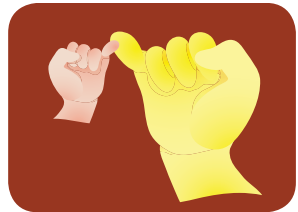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가문: 가족 또는 가까운 일
 가로 이루어진 공동체 또는
 그 사회적 지위

언약: 말로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나요?(31절)

入 ○ ○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새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면 서로 무엇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요? (34절)

는 을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시내산에서 맺은 십계명을 비롯한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을 세우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친히 새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어요. 따라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알아 순종할 거예요. 그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키지 않아 죄의 대가를 치른 이스라엘과 유다백성들을 생각하며 나의 모습을 비춰 봐야 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과 새 언약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새 언약과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32:16-33:26 “불순종의 결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8.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 준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29.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 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 버리겠다.
30.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31.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 앞에서 치워 버리겠다.
32.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33.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 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4.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 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35.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한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도성 : 임금이나 황제가 있던 도읍지가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데서, '서울'을 이르던 말

살라 : 불에 태워 없애다, 어떤 것을 남김없이 없애 버리다

고관 : 지위가 높은 벼슬이나 관리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누구에게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28절)

“내가 이 도성을 사람의
 손에 넘겨 준다. 왕
 의 손에 넘겨 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5절)

숭배

with
생각

이스라엘과 유다 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고 우상숭배를 하여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종교지도자들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시겠다는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은 것을 교훈삼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심판이 아닌 축복과 칭찬을 받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여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34:1-35:19 “순종하여 축복 받은 레갑 족속”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의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생략)

-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략)

-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분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내림 또는 그 명령

장막 : 한데에서 벌 또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둘러 치는막

나그네 : 제고장을떠나다른 곳에 머물거나떠도는사람



with
관찰

1. 요나답이 레갑 족속에게 허락한 일에는 O, 금지한 일에는 X 표시를 해봅시다.
(6-7절)

포도주 마시기 () 집짓기 () 포도나무 심기 ()

포도원 소유 () 장막에 살기 ()

2. 레갑 족속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나요? (17절)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을 그대로 내리겠다.”

with
생각

레갑 족속은 정착 생활을 거부하고 철저히 유목 생활을 하면서 나실인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힘써 순종했어요. 이처럼 레갑 족속은 사람인 조상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여 오래도록 순종하였는데, 유다 백성은 선지자가 직접 와서 수없이 하나님의 뜻을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들었고, 유다 백성은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듣게 되었어요.

with
결심

유다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아 재앙을 받았어요. 우리 또한 주일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유다백성이 아니라 레갑족속처럼, 순종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36:1-32 “두루마리를 불태운 여호야김”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3.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4. 그래서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불렀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 주는 대로,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다.

(생략)

16.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놀라 서로 쳐다보며, 바룩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모두 임금님께 꼭 아뢰어야 하겠소."

(생략)

23.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
24.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25.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라가 왕에게 그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간청까지 했으나,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생략)

30.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31. 나는 이렇게, 여호야김과 그의 자손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신하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죄를 벌하겠다.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내가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허물 : 잘못 저지른 실수

두루마리 : 가로로 길게 이어 돌돌 둥글게 만 종이, 편지나 그밖의 글을 쓸 때 씌



with
관찰

1.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불태우면서 불순종한 사람은?
(23절)

유다 왕 ○ 호 ○ 기

2. 여호야김 왕이 불태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예언하셨고, 누가 기록한 것인가요? (4절)

가 예언하고, 이

기록함

with
생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예언하신 것을 바룩이 기록하였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였을 때 고관들은 놀랐고, 두려워 떨었어요.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무시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베고 불태우는 신성모독의 행위를 저질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과 그 자손과 유다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with
결심

여호야김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고 불태우는 불순종의 모습이 제 안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되겠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마가복음 10:45 -





3월 셋째주
2019년 3월 17일~23일



Memory Time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셋째주

♥ 주제 : 섬김

♥ 암송구절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4

♥ 오늘의 주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마태복음 6:1-4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해요.

★ 말씀 나눔

①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어떤 점을 주의하라 하셨나요? (1절)

사람에게 ○○○○ 행하지 않도록 주의 하라.

②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섬기라고 하셨나요? (4절)

네 구제함을 ○○ 하게 하라.

★ 교육활동 - “나는 우리가족의 섬김천사”

준비물: 위드지, 필기도구

- ① 위드지 부록에 있는 섬김천사 다짐문에 가족이나 친구 중 한 주간 섬기고 싶은 한 사람의 이름을 써보세요.
- ② 일주일간 몰래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을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며 섬겨요.
- ③ 다음 주에 섬김을 받은 사람에게 자신이 섬김천사임을 밝히고, 서명판에 이름이나 서명을 받아오세요.
- ④ 섬기면서 느낀점을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서로 나눠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것을 다짐해보요!



♥ 주제 : 섬김

♥ 암송구절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마태복음 6:1-4

♥ 오늘의 포인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 마태복음 6:1-4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들을 종교적 규칙 때문에 습관처럼 지켜서 했어요. 그러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가 아닌 남들 앞에서 자신을 뽐내려 하는 마음으로 점점 변해 갔어요. 진정한 사랑에 때문에 하는 섬김이 아닌, 누군가에게 자신이 한 행동을 자랑하고, 칭찬받으려 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시며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 마음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가르쳐주셨어요.

혹시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섬겨본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 있어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지 매우 중요해요. 만약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나를 드러내어 자랑하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라면 그 섬김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섬김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고 기뻐하시며 큰 상으로 갚아 주실 거예요.

Q 1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자랑하기 위해 누군가를 도와줬던 적이 있나요?



Pray 우리 가족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37:1-38:28 “하나님만 의지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1. 바빌로니아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
12.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13.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 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손자이며 셀레마의 아들로써,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소."
14.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요" 하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15.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 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16. 그 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생략)

18.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임금님이나 임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19.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 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임금님께 예언하던 임금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20.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임금님, 부디 저의 간구를 받아 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 나올 수 없습니다."
- (생략)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Q. 단어사전
 수문장 : 성의 문을 지키는 사람
- 투항 : 적에게 항복함
- 고관 : 지위가 높은 관리



with
관찰

1. 예레미야가 집안의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베냐민으로 가는 도중, 바벨론 군인들에게 항복하러 간다고 오해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13절)

2.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고, 때린 다음 누구의 집에 가두었나요? (14절)

with
생각

예레미야는 고향을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성을 떠나던 예레미야는 ‘베냐민 문’을 책임지고 있던 셀레미의 아들 이리아에 의해서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러 간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예레미야는 이리아의 말에 단호하게 ‘거짓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리아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데려갔어요. 체포된 예레미야는 고관들에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with
결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늘 선포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듣기 싫은 말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돼요.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서 그랬을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억울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39:1-18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유다 왕 시드기야 제 구년 열째 달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였는데,
2. 시드기야 제 십일년 넷째 달 구일에 마침내 성벽이 뚫렸다. (생략)
6. 바빌로니아 왕은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였다. 바빌로니아 왕은 유다의 귀족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7.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바빌론으로 끌고 가려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8.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왕궁과 민가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성벽들도 허물어 버렸다.
9. 그런 다음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아직도 성 안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투항한 사람과 그 밖에 남은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10. 그리고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 (생략)
15.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6. "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 날에, 네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17. 바로 그 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18.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근위대장 : 왕을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우두머리

with
관찰

1. 왕궁의 내사이자,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구해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16절)

□ □ □ □

2.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한 행동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 ①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처형하였다. (6절)
- ②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내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7절)
- ③ 예레미야를 해치고 바빌로니아로 끌고 있다. (12절)
- ④ 시드기야를 쇠사슬로 묶었다. (7절)

with
생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 되었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밤에 쳐들어오는 적군을 보고 도망갔지만, 결국 붙잡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인 후에, 그의 두 눈을 뽑고 사슬로 묶어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어요. 그러나 이방인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에벳멜렉은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with
결심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방인 에벳멜렉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할 그 때에도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게 해 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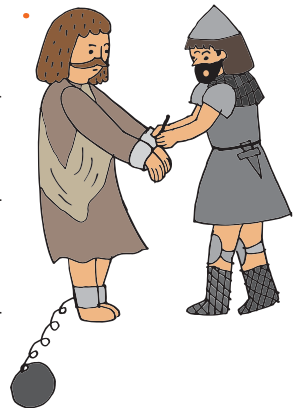
예레미야 40:1-41:18 “하나님만 따라가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1.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때에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2.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 이제 그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4. 그러나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십시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 곳으로 가시오."
5.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 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 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빌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6.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 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생략)



with
관찰

1.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 바벨로니아로 끌려가다가 느부사라단에 의해 석방된 곳은 어디인가요? (1절)

2. 바벨로니아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포로가 아닌, 자유인으로 대우하며,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때, 예레미야는 그 땅에 남아있는 자기 동족을 찾아가는데, 그가 찾아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6절)

○ **ㅎ** **ㄱ** 의 아들 **ㄱ** **ㄷ** **ㄹ** ○

with
생각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로니아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자유를 허락했어요. 바벨로니아로 간다면, 그를 잘 보살펴주겠다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아직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기 동족들과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바벨로니아로 갔다면 훨씬 풍족하고 대우받는 삶을 살 수도 있었겠지만, 예레미야는 폐허가 된 유다 땅에서 아직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달픈 백성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이예요. 예레미야는 부요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with
결심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에 포로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잘 보살펴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과 좋은 길이 있다고 여겨질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조금 어렵고 고달픈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눈 앞에 좋은 일을 선택하기보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42:1-22 “하나님과 함께 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모든 군지휘관과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 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2.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 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인 주님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3.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인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도록 해주십시오."
4.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인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생략)
7.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생략)
10.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11.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12.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빌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달라고 간구해요.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①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11절)
 ②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3절)
 ③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12절)
 ④ 우리를 고향 땅으로 보내주세요. (12절)
2.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간구한 유다백성들의 기도에 어떻게 응하셨나요? (11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하지 말아라.”

with
생각

바빌로니아 왕이 위임한 그다랴를 유다왕족인 이스마엘이 죽인 후,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요하난 일행은 예레미야를 찾아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간구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여주시고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앞에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함께 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동행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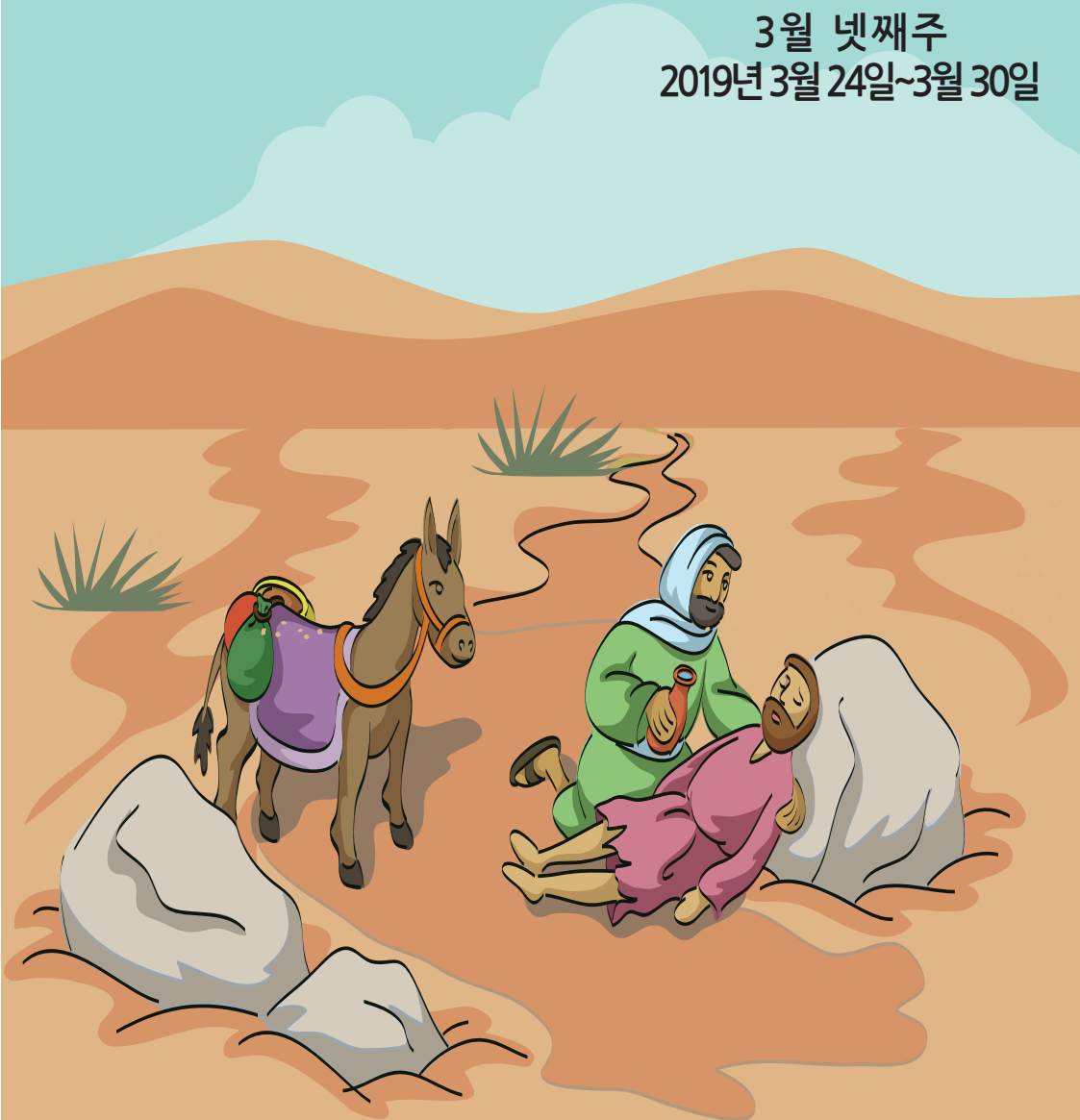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마가복음 10:45 -



위드

WITW

3월 넷째주
2019년 3월 24일~3월 30일



Memory Time



섬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넷째주

♥ 주제 : 섬김

♥ **암송구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 누가복음 10:36-37

♥ **오늘의 주제** 섬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 누가복음 10:25-37

섬김의 대상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은 누구인가요?(33절)

②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상처 입은 사람을 어떻게 도왔나요?

보기를 보고 순서대로 기호를 넣으세요. 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33-35절)

〈보기〉

- ㉠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주막주인에게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 ㉡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
- ㉢ 피하였다. ㉣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 ㉤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 도망갔다. ㉦ 짐승에 태웠다.

()→()→()→()→()

★ 교육활동 - “섬김 나무 만들기” 준비물: 위드 활동지, 필기도구

- ① 반별로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의 주변에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 ② 위드 활동지에 있는 섬김 나무의 열매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섬김나무를 완성해 보세요.
- ③ 자신이 적은 사람을 어떻게 섬길지를 나누어 보고, 결심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며 기도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섬김

♥ 암송구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 누가복음 10:36-37

♥ 오늘의 포인트 섬김의 대상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섬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 누가복음 10:25-37

어떤 유대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 강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강도는 그의 옷과 짐을 모두 빼앗고 때렸어요. 강도는 거의 죽게 된 그를 길에 두고 가버렸어요.

그 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았지만 도와주지 않고 방향을 바꿔 다른 쪽으로 비켜 갔어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어기지 않게 위해, 또한 나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길을 가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유대인에게 다가가서 친절히 상처를 소독해주고 여관에 데려다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돈도 맡겼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을 보여 준 것이에요.

우리는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만을 내가 섬겨야 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도움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섬긴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친절히 섬겨 보세요.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친절히 섬기고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Q 1 나의 주변에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Pray 우리 가족이 예수님처럼 누구라도 귀하게 여기며,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기도해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 2019.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43:1-44:19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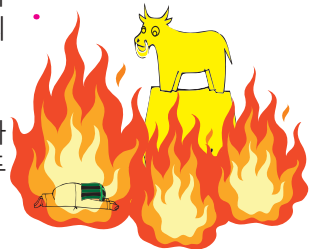
1.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멤피스**와 상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2.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보아라, 그 성읍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3.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4.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둬서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5.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6. 그래서 내가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어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불태웠고, 그래서 그 곳들이 모두 오늘날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로 바뀌어 버렸다."
7. (생략)
8.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머물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까지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너희 자신을 멸절시키며,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생략)
11.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멸종시키겠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믹돌, 다바네스, 멤피스 :
이집트의 지명



with
관찰

1. 유다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나요? (8절)

○ 人 人 人

2.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유다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11절)

with
생각

유다백성들은 자신들의 고집대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유다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우상을 섬기는 죄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우리에게 있어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게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44:19-45:5 “위로하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사 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 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 때에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2.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3.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꿈쩍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4.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5. 네가 이제 큰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 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기진: 기운이 다하여 힘이
 없어짐



with
관찰

1.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책에 받아쓰라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절)

바 룩

2.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5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만은 건져 주겠다.”

with
생각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기관 바룩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여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유다 백성들은 다 멸망한다 하셨지만 바룩의 생명은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with
결심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세요. 내가 슬픔과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제가 힘들고 슬플 때, 저를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46:1-48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2. 이것은 이집트에게 한 말씀으로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사 년째가 되던 해에, 유프라테스 강 근처의 갈그미스까지 원정을 갔다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격파된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3. 이집트의 장교들이 외친다.) "크고 작은 방패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아가거라!
4. 말에 안장을 엮고, 올라타거라! 투구를 쓰고 대열을 정돈하여라.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어라!"
5.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나?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들마저도 격파되어, 겁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한다."
6. 발이 빠른 사람도 달아나지 못하고, 용사도 도망하지 못한다. 그들은 저 북녘 유프라테스 강 가에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져 죽는다.
 (생략)
10.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오늘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다. 주님의 칼이 그들을 삼켜서 배부를 것이며, 그들의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북녘 땅 유프라테스 강 가로 오셔서, 희생제물을 잡으시는 날이다.
 (생략)
13.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갈그미스 :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군대를 격파시킨 장소

with
관찰

1. 이집트와 바빌로니아가 전쟁을 일으킨 장소는 어디인가요? (2절)

ㄱ ㄱ ㅁ ㅅ

2. 이집트 땅을 치러 올라간 바빌로니아의 왕은 누구인가요? (13절)

ㄴ ㅅ ㄱ ㄴ ㅅ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바빌로니아가 이집트를 갈그미스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멸망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이집트는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어요.

with
결심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항상 믿으며 살아가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 2019.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47:16-48:47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5. 이렇게 모압의 뿔이 잘리고,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나 주의 말이다."
26.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27. 모압아, 이제까지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너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28. 모압 백성아, 너희는 성읍들을 떠나서, 바위 틈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깊은 협곡의 어귀에 불안정하게 동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29.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빠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떠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30.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의 자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31.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협곡: 폭이 좁고 깊은 골짜기

길헤레스: 모압의 성읍



with
관찰

1.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빠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떠는 백성은 어느 족속인가요? (29절)



2.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모압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30절)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을 안다.
그의 자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with
생각

모압 백성은 자신들이 전쟁의 용사임을 자랑하였어요. 그들은 튼튼한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들은 어떠한 전쟁에서도 다 승리할 수 있다고 자만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모압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며 심판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그 누구보다 싫어하세요. 내가 잘났다고 우쭐되거나 거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졌을 때 기뻐하세요.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갖도록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갖도록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마가복음 10:45 -



위드

WITH

3월 다섯째주
2019년 3월 31일~4월 6일



Memory time



최고의 것으로 섬겨요

다섯째주

♥ 주제 : 섬김

♥ 암송구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13

♥ 성경이야기 최고의 것으로 섬겨요 ▷마태복음 26:6-13

♥ 오늘의 포인트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오늘 말씀 속에서 여인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섬겼나요?(7절)



② 내가 가진 것들 중 무엇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 교육 활동 - “섬김 주사위”

준비물: 위드지(주사위 만들기), 가위, 풀, 연필

- ① 위드지에 있는 주사위 만들기를 가위로 자릅니다.
- ② 주사위 만들기 종이 위에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예수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적어봅니다.
예-시간(하루에 15분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안마를 해드려요. 부모님 칭찬해드리기)
공부(친구나 동생에게 친절히 가르쳐주기)
- ③ 주사위 만들기 종이를 접어 주사위를 완성하고, 굴려봅니다.
- ④ 하루에 한번씩 주사위를 굴려 해당되는 섬김을 실천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 주제 : 섬김

♥ 암송구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6-13

♥ 오늘의 포인트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최고의 것으로 섬겨요. ▷마태복음 26:6-13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와 예수님의 머리에 매우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아낌없이 부었어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향유를 낭비했다며 여인에게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여인의 아낌없는 섬김은 제자들의 눈에는 불필요한 낭비처럼 보였지만 이 섬김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마리아는 향유를 부지 않았을 거예요. 혹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죽은 사람을 향유로 닦는 풍습이 있었어요.(눅24:1) 아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을 모르고 잔치를 준비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것은 돌아가실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섬김이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마음을 담아 전하는 것이예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를 바라요.

Q 1 “아낌없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Pray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요.

GOD'S 다섯째주 TIME 1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49:1-50:20 “하나님께 순종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1.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빌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12.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빌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13.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 도성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 곳을 지나서 사람마다 그 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14. 활을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에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생략)

18.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앗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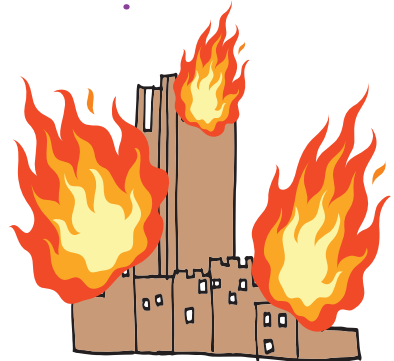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노략: 때를 지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

치욕: 수치와 모욕을 아울러 이르는 말



with
관찰

1. 바빌론 도성은 무엇 때문에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뀌게 되나요? (13절)

의

2. 바빌론 도성은 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인가요? (14절)

“...그 도성은 나에게 하였다.”

with
생각

바빌로니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빌로니아에게 분노 하셨어요. 그들의 땅과 바빌론 도성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바빌로니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힘으로 인해 벌을 받게 됨을 예언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하거나 한다면 벌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며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다섯째주 TIME 2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50:21-51:19 “하나님을 경배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5.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16.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 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17.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무식하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 생명이 없으니, 은장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하고야 만다.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
18.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별 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19. 그러나 야곱의 **분깃**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의 **조성자**이시오,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명철 :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

호령 : 부하나 동물 따위를
지휘하여 명령함

허황 : 헛되고 황당하며
미덥지 못하다

분깃 : 유산의 한 몫

조성자 : 무엇을 만들어서
이루는 자

with
관찰

1.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체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누구인가요? (15절)

2. 만물의 조성자이시며,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은 누구인가요?
(19절)

의

with
생각

사람과 동물, 식물 즉, 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본문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사람은 어리석으며, 그들이 만들어낸 신앙은 속임수이며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요.

with
결심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예요. 하나님 외에 무언가를 찬양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유한한 것이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경배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3

다섯째주

날짜 : 2018.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51:20-64 “하나님의 위대하심”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4.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빌로니아 땅과 바빌로니아 백성에게 원수를 갚겠다. 그들이 시온에 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갚아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25. 온 세상을 파괴한 멸망의 산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에게 손을 뻗어서 너를 바위 꼭대기에서 굴러 내리고,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26. “네가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잇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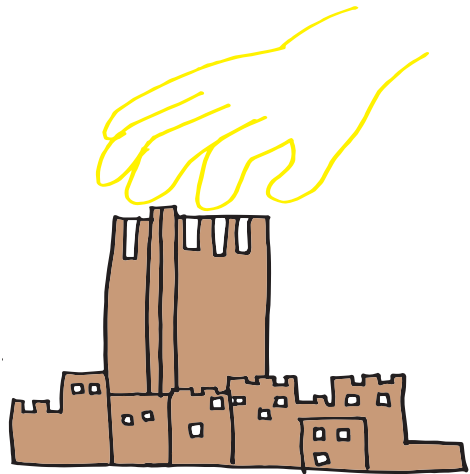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모퉁잇돌 : 주춧돌

주춧돌 :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 놓은 돌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무엇을 뺏쳐서 바위 꼭대기에서 굴리며, 불탄 산으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하셨나요? (25절)



2.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는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이것들조차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셨나요? (26절)

□ E O □, 스 트 □

with
생각

예레미야 끝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 벌에 대하여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두려울 것이 없던 바벨론이 그저 하나님의 손만으로 멸망하게 됨을 보여주셨어요.

with
결심

때로는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나를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손 하나로도 나라를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다섯째주 TIME 4

날짜 : 2018. .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예레미야 52:1-34 “악한 일을 행한 시드기야 왕”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추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2.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3.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으므로,
4. 시드기야 왕 제 구년 열째 달 십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5.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드기야 왕 제 십일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생략)
10. 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처형하고, 역시 리블라에서 유다의 고관들도 모두 처형하였다.
11.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킴이 하였던 것과 같이 무엇을 했나요? (2절)

“... 께서 보시기에 를
하였다.”

2.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나요? (11절)

“... 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에 가두어 두었다.”

with
생각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시드기야에서 무서운 벌을 내리시게 되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이더라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면 우리에게도 벌을 주실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일을 행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가족과 함께하는

Morning Time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말씀 <요한1서 4:7-11, 새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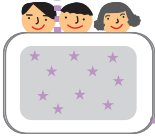
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8.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10.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OO아(야), 잘 잤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어. OO아(야),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것으로 알 수 있어. OO아(야)! 널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더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친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OO(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OO(이)가 친구들과 가족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OO(이)를 지켜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말씀을 읽어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말씀 <마태복음 18장 21-22절 새번역>

21. 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2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일곱 번만 아니라,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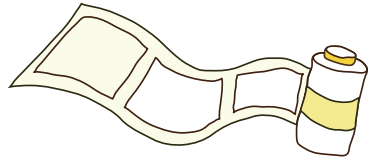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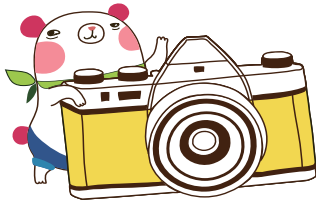
사랑하는 OO(아), 오늘 하루 잘 지냈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 OO(아), 혹시 요즘 OO(이)를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친구가 있었니? 그랬구나, 혹시 그 친구가 아직도 밉니? 이제는 용서해 주길 바래. 예수님도 나에게 잘못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나요?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본 베드로의 질문에, 일곱 번씩 일흔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하셨어. 즉, 항상 용서하라고 말씀하신거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사람들조차 모두 모두 용서해 주셨단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OO(이)에게 잘못했거나, 화나게 했던 친구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OO(이)가 되길 바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OO(이)도 OO(이)에게 잘못했던 또 화가 나게 했던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우리 OO(이)가 잠자리에 들려 합니다. 나쁜 꿈 꾸지 않고, 푹 잘 자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일도 힘차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하루를 살아가는 OO(이)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부 PHOTO



유년1부

찬양 1-1 김종연



유년1부

1-3 최사랑



유년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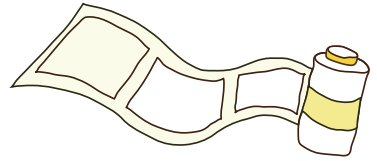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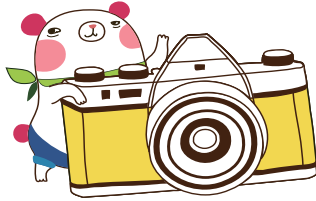
1-3 최윤혁



유년1부

1-1 신수연

유년의 PHOTO



유년2부



1-5 김하준

유년2부



1-5 현예지

유년2부



1-8 전수인

유년2부



2-2 류은성



3월

제목 :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글/ 예키즈, 윤연선
출판사 / 예수전도단



이 책은 아이들에게 잠자리에서 읽어주는 베드타임(Bed-time) 스토리북입니다. 「알렐루가 전하는 하나님 마음 시리즈」의 첫 책으로 밤을 무서워하는 어린양 ‘요요’에게 친구 ‘알렐루’가 밤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 만드신 선물이라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밤이 무서워 잠 못 드는 아이들, 아이들의 침대 머리맡에서 읽어줄 동화책을 찾는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알려 주고 싶은 부모님들, 따뜻하고 아름다운 감성동화책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을 통해 유년부 친구들이 삶에서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영성과 지성 및 감성의 발달이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3월 STICKER

Bible study!

유년()부, ()학년, ()반

이름 :



	QT	QT	QT	QT	말씀 암송	모범
1주						
2주						
3주						
4주						
5주						

○○이를 칭찬해요!

(나의 좋은 점, 칭찬할 점을 적어주세요.)



섬기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고 열심히 섬겨봐요!

섬김천사 다짐문

나 ○○○(이)는 _____의 섬김 천사가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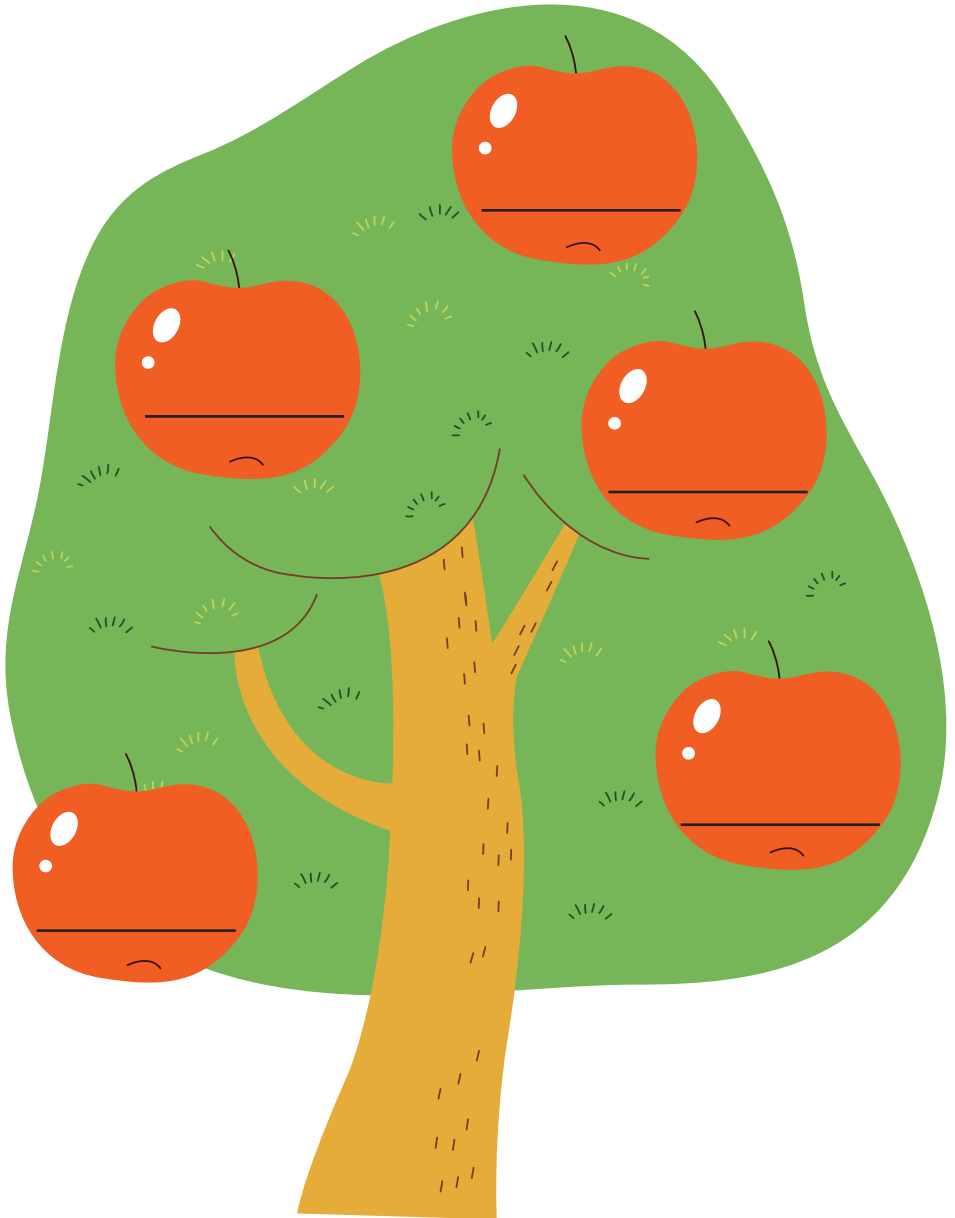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은밀하게

한 주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2019. 3.

본인 서명 _____

섬김을 받은 사람의 서명 _____



3월 다섯째 주(3/31)

- “섬김 주사위” -

